

보편적 권리에서 글로벌 목표까지

책임투자의 바탕이 된 75년의 발자취

BAILLIE GIFFORD

리스크 요인

본 글은 명시된 날짜에 작성 및 승인되었으며, 그 이후 별도의 업데이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의 의견을 대변하지만, 현재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정보는 Baillie Gifford & Co 에서 제공한 현재 시점 정보입니다.

이 글에 삽입된 이미지는 예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표지 이미지 : Midtown Manhattan Skyline
with the United Nations building in view.

글쓴이

Andrew Cav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팀장

Andrew는 1999년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 런던에 위치한 소아스 대학교(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에서 국제개발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주제로 준석사(Postgraduate Diploma)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Baillie Gifford에 입사하기 전에는 RBS의 Chief Sustainability Officer로서 금융 위기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RBS의 접근법을 재확립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영국 재무보고평의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산하 투자자문위원회(Investor Advisory Group)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Network) 영국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당사 Global Stewardship Portfolio Construction Group의 일원입니다.



목차



4
서론



6
보편적 원칙과 '개발의제'



8
ESG의 'E(환경)'



12
총, 담배, 그리고 인종차별 -
예외펀드(exclusion funds)의
등장



16
기업 스캔들과 NGO 캠페인



21
'기업의 책임'의 등장



26
글로벌 사회의 염원 - 보편적
개발목표의 최초 등장



28
ESG 대응합



32
미래

서론

지난 몇 년 사이 책임투자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와 투자 프로세스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 해당 분야는 수십년간 '책임경영'과 '윤리투자'에 집중해왔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면서 더욱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1945년 UN 설립부터 최근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그리고 오늘날까지, 책임자본주의에 이어지고 있는 관심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75년간 세계는 괄목할 만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물론 엄청난 문제들과 점증하는 환경문제가 동반되었으나, 유례없는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고, 처음으로 글로벌 관점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는 2015년에
발표되었지만, 그 뿌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사본을 들고 있는
Eleanor Roosevelt (1948년).

© Archive Photos/Getty Images.

1

보편적 원칙과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

유사 이래 인간은 ‘인간의 공동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추구한 일은 드물었습니다(예컨대, 여성은 항상 예외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대학살을 겪으면서 비로소 모든 인류를 위한,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를 정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UN은 조직 단계에서부터 단순한 평화유지단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 전신인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지요. 공식 연설에서 ‘개발’을 언급한 최초의 정치인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Truman)이었습니다. 그는 1948년 취임사에서 국제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개발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오랫동안 세계의 복지기준을 높이는데 (그 단어를 ‘퍼뜨리는’ 동시에) 집중했으나, ‘개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마침내 선진국은 더욱 개화되고 인도주의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국가의 삶의 기준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는 아이디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의 극단적인 고난을 겪은 후, 미래에 대해 큰 낙관과 기대를 품게 되면서 개발은 빠르게 UN의 핵심업무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해결과 평화의 증진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즈음 선진국 시민들은 처음으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사회의 “5대악”으로 지명하면서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해당 보고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구상을 행동으로 옮긴 첫번째 시도”로 인식되었으며, 1945년 영국 총선 후, 국민건강보험과 사회복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가 발표될 수 있었습니다. Eleanor Roosevelt가 이끈 UN 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은 30개 조항에 걸쳐 국적, 인종, 성별 또는 문화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사람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곧장 국제인권법의 중심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책임투자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의제는 20여년의 정치적 냉전시대를 거치며 주로 경제성장과 극빈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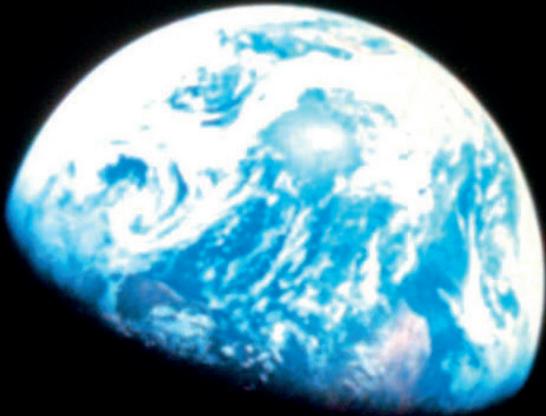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수락 연설 중인 Harry S. Truman 대통령 (1948년).

© Popperfoto/Getty Images.

2

ESG의 ‘E(환경)’

1960년에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성장이 자연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죠. Rachel Carson이 1962년에 발간한 *Silent Spring*이라는 책은 광범위한 농약 사용이 생물다양성에 끼친 비극적 결과를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반문화, 즉 카운터 컬처 운동이 세를 키워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드슨 강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펀드를 모으기 위해 1966년 시작된 *Clearwater Festival*이 좋은 예입니다.



이와 별개로 우주탐사와 위성기술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었습니다.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Apollo 8 은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최초 촬영했습니다. 사진 속 지구는 눈부시게 아름다우면서도 놀라울 만치 작고 연약한 모습이죠. Nature의 사진작가 Galen Rowell은 이 사진을 '지구돋이(Earthrise)'라 명명하면서 "지금껏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 사진"이라고 평하였습니다. 이후 1972년에 Apollo 17 이 촬영한 '푸른 구슬(Blue Marble)'은 지구 전체의 모습을 담은 최초의 사진으로 오늘날 많은 이가 떠올리는 지구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물결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상 아마도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준에서 기존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Dow Chemical이 제작하고 살포한 네이팜에 대한 비난, 오존층 파괴 증거 및 지구온난화 지표의 등장 등을 바탕으로 세계는 새로운 환경적 위협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에는 미국환경보호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최초의 민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출범했습니다. 1972년에는 유엔환경계획이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 미국 의회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도입하고 유럽연합은 환경소비자보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 과학자 James Lovelock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파급력이 상당한 가이아 이론(Gaia Hypothesis)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삶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위해 지구상의 무생물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 손을 댈 때에는 극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염화불화탄소 (CFCs) 등 공업용 오존파괴물질 사용증가로 인한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존층 파괴는 ‘인류세’ 시대가 맞이하는 첫 환경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외선 노출 증가로 인한 건강 우려가 커지면서 1987년 CFCs 및 관련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가 널리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유엔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로 알려진 어젠다의 목표와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987년 발간된 Our Common Future 또는 브룬틀란 보고서(Brundtland Report)는 환경과 개발을 하나의 연계된 이슈로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환경 이슈를 정치 어젠다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 즉 풍요와 빈곤은 모두 환경 지속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 그 중에서도 빈곤은 삼림파괴, 과도방목, 멸종위기종의 밀렵 등의 원인이 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강조한

보고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지속가능 개발의 대표적인 정의를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브룬틀란 보고서 외에도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연구와 해법 도출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1992년 리우 드 자네이로에서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체결되었고, 이는 그로부터 5 년후에는 더욱 유명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과감한 글로벌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그 후계 격인 2015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이다.**



뭄바이 슬럼가.

3

총, 담배, 그리고 인종차별 - 예외펀드(EXCLUSION FUNDS)의 등장

1960년대는 여러 분야에서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동반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시민의 권리에서 동물복지에 이르는 주제에 주목하는 다양한 시위단체와 비정부기구(NGOs)가 설립되었습니다.

감리교와 퀘이커교 같은 종교단체는 수백 년간 노예, 가축, 술, 도박 등 특정 산업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0 년대에 들어 참신한 투자 아이디어 몇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번째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그 접근방식을 바꾸기 위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윤리적인 이유로 특정 비즈니스는 투자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였습니다. 이를 위해 1971년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투자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팩스펀드(Pax Fund)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베트남전과 관련된 여러 회사를 투자에서 배제하였고,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설립된 사회투자기구(Social Investment Forum)이 1981년 출범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펀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영국에서도 반영되어, 1984년 Friends Provident Stewardship Fund가, 몇 년 후에는 F&C Stewardship Fund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윤리적 규제를 적용하는 영국 내 펀드 상품에 투자된 자산 규모는 10억 파운드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책임 있는 투자’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 정치적 태도의 변화에 맞게 자산운용의 한 카테고리로서 진화하였습니다. 윤리적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은 전체 투자산업의 극히 일부일 뿐이지만, 이러한 투자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로 알려지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많은 펀드가 논란이 많은 분야 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의 행동,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들 펀드는 선구자로서 포트폴리오에 윤리적 제약을 더하기 위해 일부 투자수익을 절충안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대중 전체의 지지 또는 제도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펀드가 투자하는 종목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다른 투자철회 캠페인 두개가 힘을 얻었는데, 그 중 하나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설리번 원칙(Sullivan Principles)’에 포함된) 아파르트헤이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떠오르면서 담배회사에 대한 투자철회 캠페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집중한 이러한 투자철회 노력과 함께, 북아일랜드의 ‘맥브라이드 원칙(MacBride Principles)’는 책임 있는 투자를 법에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단 다르프르(Darfur) 지역 학살이나 미얀마 사태에 연관된 기업을 배제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National Mall에 운집한
베트남전 반대 시위대 (1967년).

© Corbis Historical/Getty Images.

총기난사 사건 발생 후 미국의 연기금 또한 총기제조업체에 적절한 규제를 부과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일부 자산 소유주가 가장 탄소배출이 많은 연료와 기업에 규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시선은 투자철회에서 경영진에 또는 연례주주총회에 공개질문이나 의견개진을 통해 직접 이슈를 제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는데, 예를 들자면 Royal Dutch Shell은 임원보수를 탄소저감목표와 연계하겠다고 밝혔고, Glencore는 최대 석탄 생산량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기업 스캔들과 NGO 캠페인

1960년대에 시작되어 70년대에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은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는 바로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의 행동과 활동에 의문과 이익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이러한 시민사회 캠페인은 자발적인 기업의 이니셔티브와 자율규제를 위한 정부의 활동과 규제 독려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적 교착상태에 빠진 산림과 해양 관리 분야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과 해외여행, 통신의 시대가 도래하자,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에 의한 재해에 주목했습니다. 1980년대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에티오피아 대기근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직후, 유명인이 ‘Live Aid’ 프로그램을 통해 극적으로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곤궁함을 알렸으며 (Live Aid는 전세계 150개국, 19억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정), 이는 영국의 코믹릴리프 (Comic Relief)를 비롯한 여타 유사 이니셔티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계와 언론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 기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점점 더 많이 제기하기 작했습니다. 혹시

대학시절 KitKats 초콜릿 불매운동을 기억하지만 그 이유가 궁금한 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1970년대에 스위스 소비재 회사 Nestle를 상대로 NGO들이 시작한 길고 긴 불매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가 유아용 분유를 모유의 대체품으로 광고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지요. 시민단체들은 분유의 가격과 건강문제 모두를 강조하면서, 특히 오염된 물로 모유대체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1981년 최초의 ‘자발적 기준’ 이니셔티브로 탄생한 모유대체품 판매규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로 이어졌습니다.

산업 재해와 기업 스캔들의 역사

독일 오파우(Oppau)에 위치한 질산 암모늄 저장 타워가 폭발하면서 5백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2천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지점으로부터 3백 킬로미터 밖까지 폭발음이 들리고, 직경 100 미터, 깊이 19 미터의 분화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BASF 비료공장 폭발

1921

전쟁 중 탄광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세계 최악의 탄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1,500명이 넘는 광부가 희생되었는데, 대부분 화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쇄된 환기구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북동부

벤시후(BENXIHU) 탄광 사고

1942

British Coal Board 소유의 폐석 더미가 웨일즈의 한 마을로 쏟아져 아동 115명과 성인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며칠간 큰 비가 이어지는 바람에 110 피트 높이의 폐석 더미가 마치 눈사태처럼 산비탈에 쌓였습니다.

영국

애버판(ABERFAN) 탄광

1966

Dow Chemical은 베트남 전쟁 당시 네이팜 B라는 고엽제 화학물질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미국 정부에 공급한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반전 시위에 따라 다른 업체들은 제품 생산을 중단한 반면, Dow Chemical은 1969년까지 단독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DOW CHEMICAL의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

1965-1969

1972년에 수질오염방지법이 통과되기 전, 수많은 기업들(그 중에서도 General Electric가 유명)이 다량의 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허드슨 강에 바로 폐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허드슨 강은 약 30년간 오염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허드슨 강 독성물질 폐기사건

1947-1972

2015/2019

산마르코 댐과 브루마지뉴 댐(SAN MARCO AND BRUMADINHO DAM) 붕괴사고

브라질

2015년, BHP와 Vale의 조인트벤처 시설 내 광산댐이 무너지면서 오염수 4천만 리터가 도체(Doce)강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9명이 희생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생태계가 큰 화를 입었습니다. 2019에는 브라질 브루마지뉴에서 또다른 광산댐이 붕괴,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2015

VOLKSWAGEN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전세계

Volkswagen Group은 차량 배기가스 테스트를 속이기 위해 비밀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실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전세계 1,100만대 차량에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자동차회사들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2013

라나 플라자(RANA PLAZA) 붕괴 방글라데시

수많은 유명 패션 브랜드의 옷을 하청 생산하는 공장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의류공장 노동자 1,13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수습 과정에서 의류 공급망의 근로환경이 드러났고, 이에 여러 자발적 이니셔티브들이 생겨났습니다.

2011

후쿠시마 일본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발생한 홍수가 원자로 냉각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발생한 아시아 최대의 원전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독일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0

BP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석유 유출 사고

멕시코만

BP가 멕시코만에서 관리하던 여러 시추 시설 중 하나에서 치명적인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고, 해당 시설의 석유 유출 부위를 막기 위한 시도가 거듭 실패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오염 정화작업과 복원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기업 Amoco(현재는 BP의 일부로 흡수) 소유의 한 유조선이 프랑스 연안에서 침몰하였고, 그 결과 15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유조선이 초래한 사상 최대의 원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

아모코 카디즈(AMOCO CADIZ) 유조선

1978

Nestle가 개발도상국에서 유아용 분유를 모유의 대체품으로 홍보하고 광고하는 방식을 두고 긴 논란은 물론, NGO의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초로 기업의 책임에 대한 자발적 기준의 마련이 촉진되었습니다.

전세계

NESTLE와 유아용 분유

1974-1981

인도의 Union Carbide 설비에서 공업용 가스가 유출되면서 50만명 이상이 유독가스인 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된 사상 최악의 산업 재해로, 3천5백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Union Carbide

보팔(BHOPAL) 참사

1984

체르노빌 원자로 4호기의 용융은 원자력산업의 역사 상 최악의 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방사성 낙진이 캐나다에서까지 발견되었으며, 체르노빌은 현재에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1986

옥세테를 석유(Occidental Petroleum)이 북해에서 운영 중이던 유정의 폭발로 167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해상 시추 산업 역사 상 최악의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an이를 계기로 유정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해

파이퍼 알파 참사 (PIPER ALPHA DISASTER)

1988

2008

LEHMAN BROTHERS와 국제금융위기

전세계

Lehman Brothers의 파산은 당시 도를 넘은 영업을 하던 은행권에 대량 예금인출사태를 촉발했습니다. 이로 인한 금융권의 붕괴는 반 기업 정서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자유시장주의자조차 현대 자본주의가 과연 사회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2001

ENRON

전세계

에너지 기업 Enron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계 금융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회사의 감사기관이었던 Arthur Andersen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감추려 수천장의 감사 문서를 파쇄 하려던 시도 끝에 결국 도산하였습니다.

2000

바이아마레(BAIA MARE) 시안화물 유출

루마니아

Aural이 운영 중이던 저장고의 파손 사고로 시안화물 오염수 10만톤이 솟스(Somes)강으로 유입되면서 수중생물 80%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를 체르노빌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환경 사고라고 칭합니다.

1995

ROYAL DUTCH SHELL

브렌트 스파(원유 저장탱크)와 나이지리아 정부

그린피스는 불필요한 구조물을 가라앉히는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3주간 해상 원유 시설을 점거했습니다. 같은 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가스 산업에 맞서 시위를 도모했다는 이유로 지역 환경운동가인 Ken Saro-Wiwa를 처형하자 Shell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1989

프린스 윌리엄 해협의 엑손 발데즈(EXXON VALDEZ) 유조선

알래스카

엑손 발데즈(Exxon Valdez) 유조선이 알래스카 만에서 암초와 충돌, 청정하고 무결한 생태계로 25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생물 다양성은 치명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민사회 운동의 또다른 갈래는 개도국 의류공장의 노동기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인 Michael Moore는 1997년에 상영된 영화 The Big One에 Nike의 Phil Knight가 단 한번도 Nike 브랜드의 신발과 의류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공장에 방문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미국 의류회사 GAP 역시 한 NGO가 2002년에 여러 GAP 공장의 혹독한 근로조건 증거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미국 대학 캠퍼스의 시위와 불매운동 대상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작가 Naomi Klein은 1999년 발간한 No Logo를 통해 패션산업의 하청과 노동기준에 맹렬한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해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장관급 회담 회의장 밖에서는 폭동이 발생하고, 세계화 반대운동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폭동은 Gary Locke 주지사가 주방위군 2개 부대를 배치한 후 진압되었습니다. McDonalds와 Starbucks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들이 당시 시위의 타깃이었습니다.

2001년 Enron의 붕괴 후 반 기업 정서가 특히 증가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법대의 Joel Bakan 교수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The Corporation에서는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무슨 수를 쓰든 ‘부정적 효과’를 외부로 떠넘기기 위해 사이코패스 기질을 보인다는

이론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각성은 Lehman Brothers의 파산 그리고 2008년 시작된 국제금융위기 함께 비로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에 곧 ‘점거’ 운동이 촉발했는데, 시위의 화살이 처음으로 뉴욕의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를 직접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발생한 두가지 사건, 즉 2010년 멕시코만에서 BP가 관리하던 시추시설에서 발생한 엄청난 원유 유출과 2015년 Volkswagen의 배기가스 스캔들로 과연 대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다시금 무너뜨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슈들은 전후 자본주의의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이를 상쇄할 만한 긍정적 사례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컨대, 기술과 프로세스의 혁신으로 전세계 인구의 삶의 질이 크게 증진되었죠. 의료, 영양, 교통, 통신의 발달로 소득과 수명에도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신뢰를 회복하고, 인재를 모으고, 더욱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단순한 ‘BAU’의 수행보다는 자발적 기준과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

‘기업의 책임’의 등장

비즈니스에는 온정주의라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이는 자애로운 자본가가 직원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투자할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Unilever로 유명한) William Lever 경과 그가 노동자들을 위해 리버풀 근처에 만든 Port Sunlight 마을입니다. 과거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호의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였기에 직원 복지 투자를 두고 주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7, 18세기 네덜란드 및 영국 동인도회사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사외 주주가 있고, 투자자의 수익에 제도적으로 집중하는 다국적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진보적 주주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목표로서, 전략으로서 주주가치 우선주의에 대한 의심이 커짐에 따라 규제당국과 시민사회의 압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글로벌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오염 등 국경을 넘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위해 국제표준과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업 경영인들은 표준과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마련이 사실은 ‘현명한 이기심’이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에 더욱 집중한 결과, 영국에서는 1982년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와 1986년 IBE(Institute of Business Ethics)가 설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92년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이 설립되었습니다.

학계와 언론은 비즈니스 담론에 ‘좋은 일이 좋은 성과를 낸다(doing well by doing good)’를 다시 담았고, Body Shop의 Anita Roddick, Ben & Jerrys 아이스크림 창업주 등 기업가들은 처음으로 ‘지속가능성’을 유행어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정무역 인증 역시 커피와 초콜릿 등의 상품 카테고리에서 빠르게 안착했습니다. Royal Dutch Shell의 격동기였던 1990년대에 회사의 중역과 회장을 역임한 Mark Moody Stuart경 등 재계 지도자들 역시 더욱 지속가능한 주주 관계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내부의 본보기를 만드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Unilever의

네덜란드 출신 CEO인 Paul Polman도 나중에 지속가능한 리빙플랜(Sustainable Living Plan)을 회사의 중심 전략으로 삼으면서 이러한 역할에 동참했습니다.

글로벌 문제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시민사회의 행동주의,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및 통신의 발달, 재계의 태도 변화가 만나, 1980년대 후반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물결의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어떻게 사회, 환경 문제를 다루는지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초반에는 정책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발적 기업공시를 증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존의 지역사회 기부보고서와 환경보고서에서 진화한)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에 응답하였으며,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1997),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2000),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2010), 미국에 위치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11) 등이 작성한 새로운 표준을 바탕으로 이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하위산업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는 내부 팀을 육성하기 위해 책임 있는 비즈니스 컨퍼런스, 컨설턴트, 감사인,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장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지마(Jimma) 지역의 공정무역 커피농장에서 하얀 커피빈을 햇빛에 말리고 있는 노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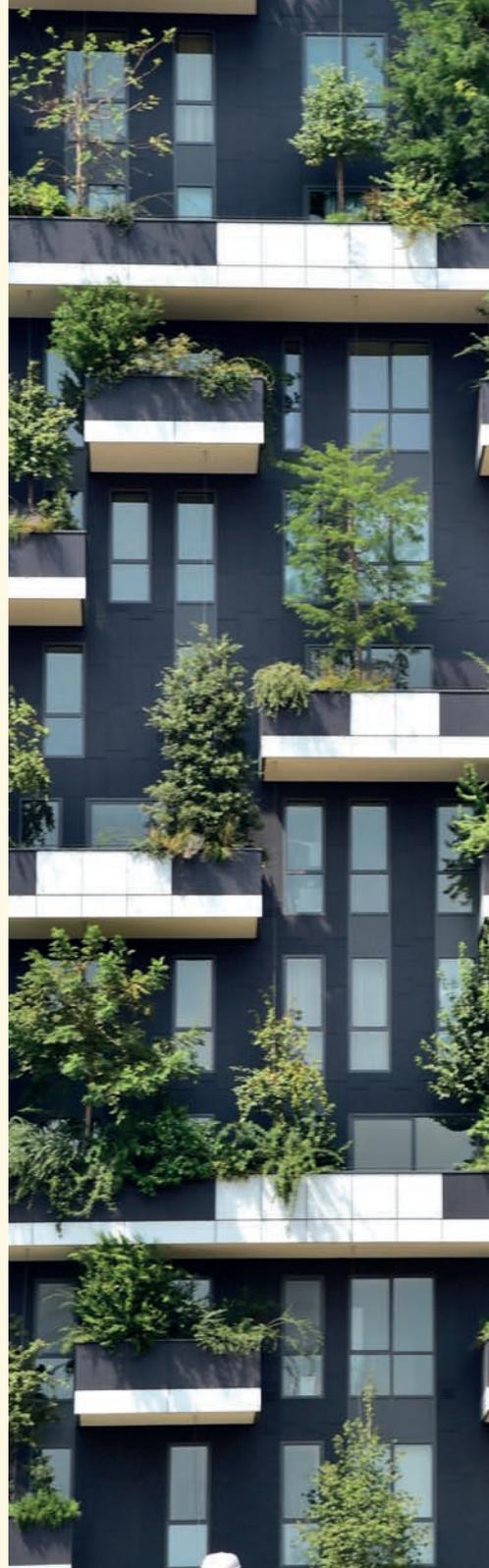
© Corbis News/Getty Images.

이와 동시에 임업, 추출산업, 은행업 등의 분야에서는 지속가능성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각 분야별 이니셔티브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자 중요한 플라이휠 효과가 생겨났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기업이 특정 이슈를 선도하면서, 이들의 성과는 제대로 인정하고 각 분야의 경쟁자와 ‘무임승차자’가 넘어야 할 기준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캠페인도 새로운 분야별 표준을 최소한의 시작점으로 삼아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민단체는 은행권의 적도원칙협회(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처럼 처음으로 국가를 넘어 산업을 대변하는 단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계의 이러한 ‘이중장치’와 NGO의 압박 덕분에 지난 30년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자발적 업무가 상당수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투자업계의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신규 이니셔티브는 1999년에 출범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로, (인권, 노동권, 환경 및 반부패를 다루는)

자발적 최소 기준이자 (모든 조인국이 반드시 연례 ‘이행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보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 분야를 아우르는 최초의 자발적 글로벌 기준으로서, 유엔의 소집능력을 빌려 빠르게 수천개의 참여기업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의 진보적인 기업 경영진은 책임경영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최고의 글로벌 무대에서 전달하고 싶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때에 투자업계에서도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자산 투자자와 운용사는 미국의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1989) 및 영국의 사회투자기구(Social Investment Forum, 1991) 등 단체가 일군 선구자적 업적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발적 기업공시 표준을 지지하였습니다. 자산 투자자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2000)의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문제를 금융투자의 장기적 문제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금수탁기관을 위한 법률 지침 또한 협의의 엄격한 수탁의무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아가 이를 독려하는 광의의 수탁의무로 진화하였습니다. Paul Watchman 변호사는 2005년은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여러 사법권에서 규제 상 지침을 변경하기 위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은행 애널리스트가 처음으로 ESG 이슈를 다루기 시작한 2001년에는 FTSE4GOOD 윤리투자지수가 도입되었고, ESG 연구기관들은 ‘주류’ 투자자들에게도 서비스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1992)는 ‘책임투자원칙 (UNPRI)’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을 소집하였고, 이를 2006년 4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UNPRI는 운용자산이 70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2천여 회원사들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자발적 책임투자 이니셔티브가 되었습니다. 다만, UNPRI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그룹(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2012) 등 다른 지역에서 특정 이슈에 집중하는 이니셔티브와 네트워크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속가능한 투자에 더욱 주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 거버넌스와 투자자 스튜어디십 코드를 발표하는 국가가 많은 바,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1995), CII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1985) 등 초반에 거버넌스에 집중했던 단체들 역시 광범위한 ESG 관련 이슈와 그 회원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ESG 고려대상인 운용자산의 급격한 성장과 장기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예컨대, 최근 출범한 ‘장기관점투자(Focusing Capital on the Long Term)’)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이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밀라노 Porta Nuova 지역에 위치한 Bosco Verticale 타워(Vertical Forest).

© GIUSEPPE CACACE/AFP/Getty Images.

6

글로벌 사회의 염원 - 보편적 개발목표의 최초 등장

책임투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글로벌 개발목표의 부상입니다. 1990년대초 냉전이 종결되자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였고, 정치인들은 다가오는 밀레니엄에 모든 나라의 보편적 지지를 받는 개발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9월 Kofi Annan 사무총장이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를 통해 전세계 189개국은 2015년까지 극빈퇴치와 보편적인 초등교육 및 양성평등의 달성 등을 포함한 8가지 상위 목표를 성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MDG는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세계은행과 NGO와 같은 다자간 개발기구가 이에 주목하였으나, 2015년 이후 해당 목표를 교체하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업무가 시작되기까지 사회, 정치적 맥락도 상당히 진화하였습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맴돌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으로부터 재계가 개발목표와 관련한 솔루션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총 8개 목표 중 단 하나만이 환경 관련 목표인 바) MDG에는 환경 관련 목표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였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니셔티브의 모멘텀은 기업조직이 사회적 정책목표의 설정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2) 등의 기업주도형 이니셔티브들이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 초청되었습니다. 그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 각 정부는 2015년부터 새롭게 실행하게 될 더욱 원대하고 광범위한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설정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지속가능 개발목표는 처음 발표된 후, 정부와 개발기구를 넘어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며, 현재는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과 지지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된 목표로 그 기간이 15년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전략과 계획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이 목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 분야의 목표 체계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임팩트 투자 분야는 재정수익과 함께 측정 가능하고 유익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 제공을 추구합니다. 나아가 투자자들이 긍정적 환경 영향과 재정적 성과라는 '두가지 이익'을 원하게 되면서 같은 기간에 '녹색' 채권과 투자펀드 역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환경주제를 바탕으로 한 투자는 '지속가능 투자'로 불리는 경우도 많음)



7

ESG 대응합

지난 몇 년간은 전통적 '책임투자'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맞물리며 투자와 사회의 목표가 결합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산운용업에서도 'ESG'는 생소한 용어가 아니지만, 환경과 사회 이슈는 최근 몇 년에 들어서야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 사이에서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주의 의견개진 증가, 이사회 수준의 지속가능성 및 주주위원회의 설립, 남녀임금격차와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을 성토했는 재계의 목소리, 임원 보수 목표에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ESG 메트릭스 도입, 책임투자 펀드와 임팩트 투자 펀드 및 운용자산의 안정적 성장, 최근 개정된 영국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삽입된 '목적'과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 등 ESG의 융합을 보여주는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주주와 규제당국은 책임 있는 경영에 더 큰 초점을 두기 때문에, ESG의 통합을 주류에 편입시켜 재정적 동기가 가장 큰 투자자의 관심까지 끌 수 있는 자기 충족적 다이내믹이 등장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의 시대'라 할 만한 시기에 접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바탕으로 잘 통제된 기업들이 상업적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끈기 있고, 능동적인 투자자에게 ESG의 통합은 점점 더 현명한 이기심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면 투자수익을 막는게 아니라 수익창출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책임투자에는 '선의의 감가(virtue discount)'가 따른다는 주장이 인정되던



과거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웰빙, 평등, 환경 지속성의 3대 주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와 재계 모두에서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퓰리즘과 눈 앞의 기후변화가 끊임없이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저렴한 세계여행, 24시간 계속되는 글로벌 뉴스, 이민, 소셜미디어, 그리고 프로 스포츠까지 새로운 글로벌 인식 제고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곳대 높은 경영진도 주주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Do no evil)”을, Nestle는 “공동의 가치 창출(Create shared value)”을, Facebook은 “세상을 가깝게(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소득’ 국가만 문제가 있다는 듯 ‘개발이론’ 및 번영과 웰빙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이들 국가에만 적용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성장의 결과가 모두에게 널리 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면서, 극단적 불평등은 결국 모두에게 나쁘고, 밀레니얼 세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사회적 기업과 ‘웰빙 경제’, 한정된 지구에서의 삶에 주목한다는 ‘정신적’ 통찰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주변부에서부터 자본주의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머지않아 에너지에서 기술, 패션, 명품에 이르는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말아야 할 역할은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투자프로세스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염두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장기적 관점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자는 퇴직 자금 마련을 원하는 동시에, 퇴직하는 그 미래가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 웰빙, 평등, 환경 지속성의 3대 주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와 재계 모두에서 계속 증대될 것**

8

미래

현 세대는 어떻게 이 유한한 지구 안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웰빙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거대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창업 자본주의의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를 모두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우리는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회 및 환경 이슈를 극복 해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강의 오염이 너무 심한 나머지, 1858년 여름 'Great Stench' 사태 당시에는 악취가 절정에 달해 국회의사당을 버리고 달아날 정도였습니다. 이제 템즈 강의 수중 생태계는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영유아 사망률 또한 크게 감소했고, 천연두와 같은 질병은 근절되었습니다. 중공업 및 추출산업 분야는 지난 수십년간 더욱 강력한 환경 제재와 함께 안전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양 스튜어드십 위원회(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관리정책 하에 야생 어장 역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존층에 났다는 구멍 기억하십니까? 1989년 오존 파괴물질이 금지된 후, 오존수치가 크게 회복되었고, 오존층 구멍은 2075년까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변화의 위협과 국내외의 불평등 정도는 모두 다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해법을 찾는 데 책임투자가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원예 기술 - British Sugar의 토마토 농장.

- 현 세대는 어떻게 이 유한한 지구 안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웰빙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거대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중요 정보

Baillie Gifford & Co와 Baillie Gifford & Co Limited는 영국 금융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약칭 FCA)의 인가 및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Baillie Gifford Life Limited는 OEIC의 공인 기업이사(Authorised Corporate Director)입니다.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는 영국 외 국가의 전문/기관투자자에게만 투자관리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는 Baillie Gifford & Co 및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 소유로 영국 FCA의 인가 및 규제 하에 있습니다.

Baillie Gifford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Limited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고객에게 투자관리 및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어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EU 금융상품투자지침 (MiFID) 허가를 통해 Baillie Gifford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Limited (프랑크푸르트 지점)을 설립하여 독일에서 투자관리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Baillie Gifford Worldwide Funds plc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Baillie Gifford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Limited은 Baillie Gifford & Co가 소유하는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전문상담인에게 영국 내 투자를 위해 정부 및 기타 기관의 허가를 구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고, 세무상담인에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홍콩

Baillie Gifford Asia (Hong Kong) Limited (百利亞洲(香港)有限公司)는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 소유 법인으로 홍콩 내 전문 투자자에게 Baillie Gifford의 UCITS 펀드를 광고 및 판매하기 위해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1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30/F, One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1 Harbour View Street, Central, Hong Kong. 대표번호: +852 3756 5700.

한국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는 한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역외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Mitsubishi UFJ Baillie Gifford Asset Management Limited('MUBGAM')는 Mitsubishi UFJ Trust & Banking Corporation과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의 합작투자회사로 영국 금융당국의 인가 및 규제 대상입니다.

호주

본 자료는 귀하가 호주 회사법(2001)에 정의(s761G)된 대형고객(wholesale client)이라는 가정 하에 제공됩니다.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 (ARBN 118 567 178)는 해당 회사법 상 외국회사로 등록되어 호주 대형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법(2001) 상의 금융업인가 취득을 면제받았습니다.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는 호주 내 적용법과는 상이한 영국 금융당국의 인가 및 규제 대상입니다.

남아프리카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는 남아프리카 금융위원회에 외국금융서비스제공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북미

Baillie Gifford International LLC는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의 소유로 2005년 델라웨어(Delaware)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의 대고객 서비스와 마케팅을 수행하고 캐나다에서는 일부 마케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자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BAILLIE GIFFORD. ACTUAL INVESTORS.

bailliegifford.com/actual-investors

**Calton Square, 1 Greenside Row, Edinburgh EH1 3AN
Telephone +44 (0)131 275 2000 / www.bailliegifford.com**

Copyright © Baillie Gifford & Co 2015.